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다” 서민시장 행보 활발



‘소통 투어’에 나선 박홍을 목포시장이 지난 14일 목포시 연동 유학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환담하며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민시장’을 표방한 박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계각층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는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 호응을 받고 있다.

박홍을 목포시장 ‘톡 톡(Talk Talk) 소통 투어’ 눈길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민선 6기 서민시장을 표방한 박홍을(사진) 시장의 ‘소통 투어’ 모토다. 박 시장은 “시장이 먼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

며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시민이 원하는 시장을 펼쳐 나가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소통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박 시장의 ‘톡 톡(Talk Talk) 투어’ 소통 투어가 시민들 사이에서 ‘감동 행정’으로 인식되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소통 행사가 많았지만 이번 소통 프로젝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격식과 외형보다는 내용과 실속을 추구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타파한 저지점 의미있는 변화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이 시정의 제1 목표를 소통에 두는 목포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을 찾기 위한 강한 의지로 해석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 행복 발로 찾기’ 소통 프로젝트 =취임 100일을 넘어선 민선 6기 시장 목표를 구체화한 박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시민행복 발로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각계각층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을 자연스럽게 만나 꾸밈없고 포장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 온몸으로 느껴 시민의 삶 속에 몸을 맡겨 시민행력을 이끌

어내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행정 프로젝트다.

박 시장은 시민행복의 첫 출발은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기업인들을 맨 먼저 찾아갔다.

지난달 18일 열린 ‘산정·삼진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초청 간담회’가 바로 그것. 이날 만남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생력 제고와 규제 개혁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농공단지 생산 제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심 미팅·시민 등반의 날...직원들과 호프 미팅 ‘노후주택 경정 투어단’ 가동하고 시민행복 발로 찾기 나서 환자안심병동·24시간 어린이집 등 서민 100대 시책 추진

이어 박 시장이 찾아가는 곳은 관내 어르신들. 그는 지난 14일 연동 관내 7개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자치행정과 역점 시책인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 차원으로, 매일 두 차례 실시된다. 다음 방문지는 주민자센터 프로그램 교실과 복지시설이다.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과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음식점 등에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현장에서 경청하는 ‘소상공인과의 즉석 런치(점심) 미팅’도 조만간 가질 예정이다.

또 주말에는 관내 유달산, 입암산, 양을산, 부주산 등을 등반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등반의 날’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 의견수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후주택 경정 투어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생활체육회 동호회를 방문하는 ‘운동 왔어요’ 행사를 비롯해 하위직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갖는 ‘호프 미팅’,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자연스런 ‘런치 미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 박 시장이 ‘시민 행복 발로 찾기’ 소통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데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겠다는 시정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 빛을 발하고 있다.

◇‘서민시장 표방’ 서민위한 100대 시

이들 가운데 돋보이는 시책으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동’,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야시장 운영’ 등이 꼽힌다.

목포시 의료원이 50 병상 규모로 운영 중인 ‘환자 안심병동’은 수술 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게 환자의 권리와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은 야간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점심시간대 주차 단속을 지양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광객 유치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따온 ‘남진 야시장’ 운영도 눈길을 끈다.

특히 매일 확대간부회의 이후 목포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목포시 현안사항 해법 찾기 간부토론회’ 시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해태를 늘리는 시책으로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인류 유예,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 동별 1개소 작은 도서관 확충, LP 가스요금 교체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효과성이 없는 시책은 과감히 배제하고,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시책은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 위한 주요시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글·사진 고규석기자 yousou@

응급의료 헬기 602건 출동·543명 이송

목포한국병원 비행 3주년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3년째 첫 비행을 시작한지 3주년을 맞았다.

19일 목포 한국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945건의 출동요청 중 602건의 헬기출동으로 543명의 생명을 이송했다. 의료진이 헬기를 이용해 평균 11분만에 현장에 도착, 선박 등 다른 이송 수단을 이용했을 때 보다 평균 70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전남도의 유인도 수는 296곳에 달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되기 전에는 섬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 받기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비행 이후 응급환



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골든 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시켜 초기치료 개시를 앞당겨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었다.

특히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료 전용헬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현장에 직접 출동,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 기독교병원, 중소병원협회장배 축구대회 3연패

목포 기독교병원(원장 위희수) 축구팀이 최근 충북 청주시 용정 축구공원에서 열린 ‘제4회 대한중소병원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우승(상금 100만원)을 들어올렸다.



2012년, 2013년에 이은 3연패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병원 15개팀과 보건복지부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목포 기독교병원 축구팀은 4강에서 보건복지부를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거제 대우병원을 3-2로 역전승했다.

목포 기독교병원FC 이삼수 회장(원부

장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기독교병원 축구팀은 지난 6월 열린 ‘제2회 노동부장관배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해 2015년 ‘FA CUP’ 출전권을 따내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소방서, 흥도에 소방삼륜차 배치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최근 흥도에 해상국립공원인 신안군 흑산면 흥도에 ‘소방 삼륜차’를 배치했다.



‘소방 삼륜차’는 흥도 지역 소방여건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개조, 소방호스 20개와 동력 소방펌프 1대, 소화기 2대, 관창 2개를 기본 적재해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했다.

목포소방서는 소방 삼륜차와 화재진압장비를 보관하고 의용소방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도 함께 설치했다.

흥도의 경우 그동안 남녀 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과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소방장비 부족으로 현장대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차덕운 서장은 지난 30일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 사고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관광객 인명구조에 나선 흥도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관광객과 지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어부사시사
전복요리 전문점

여름철 별미
황칠나무로 우려낸
전복삼계탕 15,000원

점심 특선 메뉴

- 전복 비빔밥
- 전복 떡배기 ₩8,000원
- 전복 갈치찜
- 전복 갈비찜
- 전복 생우럭지리

목포 용해동사무소 뒷편 ☎(061)278-4111

(유)신호개발
교통신호기 및 내·외선 전기공사

사무실 | 목포시 후광대로 143번길 12-6
대표이사 | 신 승 태